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



KONKUK University

혁신을 '더'하다 미래를 '더'하다

Plus & More

건국대학교는 지난 수년간 각 분야에서 혁신을 '더(More)' 해 왔습니다.
주저함 없는 그 변화와 도전의 길목, 캠퍼스마다 새로운 희망이 꽃피었습니다.

• •

이제 그 융성한 열매들을 동력 삼아 한국 대학교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융합' 과 '통합', 첨단 인재 양성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 •

마침표 없는 새로움으로 대학과 학생에게 미래를 '더(Plus)' 하는 건국대학교.

Contents

- p 1 •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 p 3 • 평가절차
- p 5 • 서류평가

- p 8 • 면접평가
- p12 • 합격사례
- p18 • FAQ



01 학생부종합전형이란 무엇인가요?

학생부종합전형이란 대입전형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이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교과 발달사항, 비교과 활동 사항,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통해 대학 및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들의 관심사와 그에 따른 고교생활의 모습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드러난 수치를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가능성은 담지 못합니다. 이렇듯 학업의 결과만이 아니라, 고교생활 3년을 통해 학업의 의지나 태도, 관심사의 변화 등 성장해온 과정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02 건국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어떤 학생을 선발하나요?

건국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의 평가요소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성실한 고교생활입니다.

Basis of selection

- 3년간 고교생활을 주도적으로 성실하게 보낸 학생
-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관련 활동과 경험을 통해 성장한 학생
- 고교생활의 충실성을 바탕으로 건국대학교에 입학하여 잠재력을 발휘할 학생



03 건국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건국대학교는 모집인원의 약 65% 를 수시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인원은 매년 확대하여 2020학년도에는 전체 모집인원(3,327명)의 49.8%(1,657명)을, 2021학년도에는 전체 모집인원(3,343명)의 50.2%(1,679명)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전형명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인원	전형방법	인원	전형방법
학생부종합전형	KU자기추천	798	850	1단계 : 서류평가 100% 2단계 : 1단계 성적 70% + 면접평가 30%
	사회통합	63	63	
	특성학교졸업자	27	22	
	특수교육대상자	20	20	
	기초생활맞차상위	60	63	
	KU학교추천	475	445	서류평가 70% + 학생부(교과) 30%
	농어촌학생	78	80	
특성학교졸재직자	136	136		
소 계	1,657		1,679	

※ 상세내용은 2020학년도 모집요강, 2021학년도 시행계획 참조

- ▶ **2020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포인트**
 - 학생부종합전형 내 중복지원 허용
 - KU학교추천 교사추천서 폐지, 학교장 추천 명단 제출
- ▶ **2021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포인트**
 - 기초생활맞차상위 전형방법 변경 (KU학교추천과 동일)
 - KU학교추천 학생부(교과) 반영방법 변경

- 반영학기: (졸업예정자)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자) 3학년 2학기까지
- 반영교과 및 비율: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교과의 등급 환산 가능한 전 과목 100%

다수다단계
평가절차

- 지원자 한 명을 여러 명의 평가자가 여러 단계를 통해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평가 과정에서 지원자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실사(서류실사, 면접실사) 과정을 통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 우리대학은 일정 점수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서류재평가, 면접재심의 과정을 거칩니다.



자기소개서
유사도검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 지원시스템을 통해 최근 3개년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대학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모두 대조합니다.
- 총 4회 진행(수시 1차, 사후검증(수시), 정시, 사후검증(최종합격자))하므로 최종 합격을 했더라도 불합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유사도검증은 유사도 최댓값에 따라 3가지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구 분	자기소개서 유사도 최댓값
A수준 (Blue zone)	5% 미만
B수준 (Yellow zone)	5%이상 ~ 30%미만
C수준 (Red zone)	30% 이상

• 유사도검증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도 소명 사례

- 우수한 자기소개서 모음집에 나온 사례들을 짜깁기하여 작성한 경우
- 원서 접수 마감 시간에 쫓겨 친구의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한 경우
- 학교 친구의 자기소개서 일부분을 가져와 본인 사례로 바꿔서 작성한 경우
-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선배에게 멘토링을 받아, 학습법과 프로그램 참여 내용이 동일하게 작성된 경우
- 공용 컴퓨터실에서 자기소개서가 담긴 USB를 그대로 두고 나와 유출된 경우
- 자기소개서 우수 사례로 교내에서 소개되어 동교생들에게 공유된 경우
- 교내 탐구대회에 제출한 조별 보고서 내용이 동일하여, 조원에 해당하는 학생들끼리 활동이나 느낀 점에서 유사도가 나온 경우

01 서류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평가방법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4가지 평가요소에 따라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활동의 결과보다는 준비과정 및 노력, 활동 이후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 장의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QR코드를 활용하세요.

02 자기소개서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0점 처리

- 공인어학성적 및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기재 시 0점 처리됩니다.
- ‘교외 수상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적이라도 작성 시 0점 처리됩니다.

기재 금지사항

- 논문, 학회지 등재, 도서출간, 발명특허 관련 내용, 해외활동실적, 교외인증시험 성적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활동을 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논문/도서 : ‘현장 취재 활동을 통해 책을 출판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특허 : ‘특허 출원한 경험을 통해’
 발명 : ‘발명 전시회 본선에 출품 하였습니다’

-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고교명 : 교내축제 ‘○○제’, ‘○○교’ 기약동아리
 이름 : “○○야, 너무 욕심내지마”, “○○야, 이것 좀 알려줘”
 부모직업 : ‘식품분야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축사를 운영하는 외할머니댁’

03 자기소개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기소개서 문항

- 1** 공통 문항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
- 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 4** 자율 문항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

※ 2021학년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이 개선될 수 있으므로 추후 공지되는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항별 작성팁

TIP

- 1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 작성**
 - 자기주도학습법이나 내신 등급 상승 등의 기술보다는 학습의 계기를 작성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성적의 추이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해당 주제에 대해 관심이 생긴 계기, 그에 따라 학습을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 2 교내활동 중 의미 있던 경험의 구체적 사례 작성**
 - 반드시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활동들로 구성해야 한다거나, 3개를 500자씩 나눠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업참여, 과제수행, 학생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고교생활 속에서 의미 있던 내용으로 작성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즐거웠던 활동, 본인의 고교생활을 대표할 수 있을만한 활동이면 더 진정성 있게 기술될 수 있겠죠.
- 3 본인의 역할과 기여점 위주로 작성**
 -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하기보다는 한 두 개 사례를 충실히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기소개서에서 평가하려는 것은 지원자의 소속 고교나 학급, 또는 단체의 우수성이 아니라 지원자 개인의 특성임을 유념하길 바랍니다.
- 4 지원동기와 진로탐색을 위한 노력 과정 작성**
 - 자율문항은 대학 선택사항으로 해당 대학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물어보게 됩니다. 건국대학교의 4번 문항은 지원동기와 노력과정을 묻고 있는 만큼, 지원하는 학과(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지원하는 학과(부)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를 충족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로 인해 무엇을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어떤 활동을 강조할지가 달라지므로 4번 문항을 먼저 작성하고 1~3번 문항을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01 면접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평가방법

- 면접 시간은 10분 내외이며, 지원자 1명에 대해 평가위원 2명이 개별 면접으로 진행합니다.
-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서류의 진위여부와 인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블라인드면접으로 진행하므로 지원자의 출신고교를 나타낼 수 있는 교복 등의 착용이 금지되며, 면접 시 본인 이름·고교명·수험번호를 언급하면 안됩니다.

면접평가 순서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02 면접질문이 궁금해요.

철학과

- Q1** 칸트의 정언명령에 대해 배웠다고 했는데, 제1법칙과 제2법칙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 Q2** 기자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철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나요?
- Q3** 니체의 자아와 자기에 대해 보고서 작성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두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 Q1** 과제연구 시간에 방송물의 해외 현지화에 영향을 주는 5가지 요인을 분석했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Q2** 대중과 미디어의 관계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 Q3** 기사단으로 장애인 인식 관련 조사를 했는데, 몇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나요.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행정학과

- Q1** 분배적 정의와 공정한 분배에 대해 수업시간에 다루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 Q2**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고전을 읽었다고 나와 있는데, 생각나는 내용을 이야기해볼까요?
- Q3** 한비자와 순자의 관점을 통해 왕따 문제의 해결책을 연구했는데, 고등학교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주장인가요?

영어 교육과

- Q1** 영어 번역 봉사 활동을 꾸준히 했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번역이 힘들었던 책이 있었나요?
- Q2** 수업시간에 우리나라 영어교육을 분석했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 보나요?
- Q3** 초등교사를 희망하다가 영어교사로 바뀌었는데, 그 계기가 있나요?

건축학부

- Q1** 수학과 건축의 연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했다고 나와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Q2** 바우하우스 모형을 제작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야기해볼까요?
- Q3** 배리어프리와 장애인을 위한 공간을 언급했는데 가장 이상적인 건축물은 무엇인가요?



02 면접질문이 궁금해요.

Q 전기전자 공학부

- Q1 쓰레기 분리시스템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나요?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혹 문제가 발생하거나 보완할 점은 없었나요?
- Q2 생명과학에 대한 성취가 높고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전기전자공학부에서 공부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 Q3 엔트로피에 대해 배웠다고 했는데, 엔트로피의 원리를 설명해볼까요?

Q 줄기세포 재생공학과

- Q1 줄기세포가 만능세포라고 하는 데 동의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 Q2 동아리에서 DNA메틸화분석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다고 했는데, 어떤 자료를 참고했나요. 작성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Q3 아토피에 대한 고민으로 재생공학과에 관심이 생겼다고 했는데, 아토피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융합생명 공학과

- Q1 단백질 특성 연구를 위해 논문을 읽었다고 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찾아봤나요? 논문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연구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 Q2 곰팡이 종류 동정을 위한 형태학적 DNA 염기서열 분석을 수행했다고 나와있는데 내용을 설명해볼 수 있을까요?
- Q3 교내 창의과학대회에서 입상한 청국장과 낫토의 혈전용해 효과 비교 실험에서 설정한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해 설명해볼까요?

Q 화장품 공학과

- Q1 발효 화장품을 제작하고 싶다고 했는데, 발효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 Q2 천연 에센스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어떤 재료들이 들어갔나요? 천연화장품이 갖는 장단점이 있을까요?
- Q3 자외선 차단 필름 제작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Q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

- Q1 탐구토론부분 수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고 본인이 기여한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해볼까요?
- Q2 3학년 때 활동 중 'C언어를 이용한 moving sofa problem의 해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 Q3 2학년 동아리에서 아두이노 AI형 작물재배모델을 제작했다고 나와있는데 설명해볼까요?



03 면접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1 자신의 활동내용을 잘 기록해두고, 면접 전에는 꼼꼼히 리뷰해요

“ 건국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은 100% 제출 서류 내용에 기반을 둔 면접으로 진행돼요. 즉, 자신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는 형태의 면접이라는 거죠. 따라서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는 자신이 기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고교 생활 중에 참여했던 다양한 활동들의 계기-과정(내용)-결과-배우고 느낀 점을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

02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습관을 길러요

“ 많은 학생들이 고교 생활 중에는 말하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면접고사에 임박하여 단기속성으로 준비하곤 해요. 하지만 긴장 상황 속에서 조리 있게 의견을 말하는 능력은 짧은 시간 내에 길러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발표, 토론 등 수업과 교내활동 중 말하기 훈련이 필요한 상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말하기능력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03 긴장 완화를 위한 마인드컨트롤은 필수!

“ 면접고사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되는 현장일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당일에 너무 심하게 긴장하게 되면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는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긴장을 잘 다스리는 자신만의 마인드컨트롤 방법을 잘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긴장상황에서 침착하게 일을 처리하는 훈련을 자주 해보면 그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친구들과 면접 상황을 연습하면서 미리 익숙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

04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 보통 면접고사는 10분 내외로 진행하며, 5~7가지 정도의 질의응답을 하게 돼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학생일수록 한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그 영향으로 이후에 나오는 질문에도 답변을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되는 거죠. 이걸 너무나 어리석은 거랍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지막에 근소한 차이로 합/불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오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진 합격!"

[김선민, 문화콘텐츠학과 19]



콘텐츠 제작의 꿈과 현실

어렸을 적, 어머니께서는 혼자 있던 시간이 많던 저를 위해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각종 전시회 등 많은 콘텐츠를 접하게 해주셨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저 그것들을 즐기면서 재미를 얻거나 감동을 받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엔딩 크레딧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존재한다는 것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목표가 생겼습니다. “나도 이렇게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보겠다.”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정말 마구잡이로 관련된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관련된 강좌를 찾아 들었고, 집에서는 각종 책을 읽으며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게임뿐만이 아니라 다른 콘텐츠들 또한 제작에 상상 이상으로 많은 분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획, 스토리, 시장분석, 프로그래밍, 음향, 디자인, 통계분석과 더욱 깊이 들어가면 심리학까지.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분야가 필요했습니다. 즉, “나 혼자서는 못 만들겠구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단순하게 추려봐도 디자인, 프로그래밍, 기획, 즉 문과, 이과, 예체능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다양한 관심사의 친구들과 키워번 동아리 활동

“어떻게 해야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끙끙거리며 모든 분야를 조금씩 하기보다는, 다양한 친구들이 모인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쪼개볼까,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 같이 만들고 싶은 사람은 있을까, 있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끌어모을까. 일단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동아리의 홍보 문서를 만들고 대량으로 인쇄해 각 반의 게시판에, 중앙 복도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각 반 동아리를 돌아다니며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모았습니다.

그렇게 문과, 이과, 예체능 분야의 친구들을 끌어모아 3년간의 긴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생활 내내, 동아리는 저와 함께 커갔습니다. 처음에는 콘텐츠를 만들자는 막연한 목표로 10명 남짓의 학생들이 모여있었습니다. 그러나 3학년이 되었을 때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라는 뚜렷한 주제와 목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그 인원은 무려 47명, 3학년 학생들의 약 15%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불규칙적이었던 활동은 규칙적으로 조금씩 틀을 갖춰갔으며, 점점 다양한 분야의 친구들이 함께해줬습니다.



끝없는 저물길, 놓지 않은 나의 꿈

물론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활동 시간은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분야의 친구들을 매끄럽게 소통시키는 일은 분명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적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동아리 수업을 위해 스스로 하는 콘텐츠 관련 독학에, 관련 강좌를 듣기 위해 평일 오후에는 따로 시간을 냈고, 주말에는 동아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친한 친구들도 농담으로 “공부는 언제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2학년 여름방학 즈음에는 성적이 크게 떨어져 이제 동아리 활동을 끝내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학교 활동보다도 “내 꿈, 내 목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던 활동은 결국 동아리였습니다. 다른 분야의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던 시간도 동아리였습니다. 그렇기에, 학생부종합전형을 믿고 동아리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먹은 바로 그 다음 주 동아리 활동 내용에 고민하던 중, VR연구소의 대표님의 강연을 듣고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얻은 지식을 나름대로 재구성하고 정리한 결과, 동아리의 주요 목표와 활동 또한 세밀하게 잡을 수 있었고, 진로 방향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관련 콘텐츠 쪽으로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후배들에게 한 마디: 성적보다는 활동에 무게를!

나름대로 각오를 다지고도, 막상 원서를 넣기 직전까지는 성적이 낮은 것 같아 계속 고민했습니다. 특히 수학이 계속 3등급으로 부진한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성적만이 아닌 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활동들에도 주목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건국대학교를 비롯한 몇몇 대학에도 함께 합격할 수 있었고, 제가 정말 바랐던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 최초합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신다면, 성적을 위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줄이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만약 제가 2학년 때 동아리 활동을 포기했다면, 분명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계속 추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성적보다는 자신의 활동에 무게를 두셨으면 합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합격하다"



[김성우, 동물자원과학과 19]



선택과 집중

제게 건국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합격은 '선택과 집중'의 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선택'부터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저의 꿈은 생물학자이다 보니 고2때 이과를 택해야하는데, 적성검사는 늘 문과 분야가 월등하게 나왔고, 고1 교과 성적 또한 생물, 지구과학을 제외한 수학, 물리, 화학 성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만약 입시제도가 정시만 있었다면, 저는 생물을 포기하고 총점이 우수한 문과를 택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에 전전긍긍하기보단, 생물 동아리나 생물 관련 학술 활동에 집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흔히 하는 오해는 완벽한 사람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이 자기의 관심분야에 얼마나 '선택과 집중'을 했느냐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기에, 모든 걸 완벽하게 고루 잘하려고 고민하기보단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기 관심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하여, 어떤 분야에 특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꿈에 대한 소신이 분명할 것

생물학자의 꿈은 초등학교 때 장수풍뎅이를 10세대 이상 키우면서 곤충에 대한 관심이 계기가 되었고, 「파브르 곤충기」라는 책을 통해 심화되어 곤충을 채집하고 생태를 조사하는 일에 매료되었습니다. 또한 '제인 구달'이 쓴 「인간의 그늘에서」라는 책을 읽고, 동물의 생태가 사육의 기초가 되고, 이를 제어하고 통제하여 인류가 발전해왔음을 알게 되자 많은 애완동물들의 먹이로 사용되는 밀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밀웬이 스티로폼을 먹고 소화시켜 낸다는 사실의 발견은 호기심을 증폭시키는 활동의 단초가 되어 동아리에서 '스티로폼을 통한 밀웬의 대량 생산'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는 밀웬의 대량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어 사고의 확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활동들로 인해 식량 산업화에서 핵심과제인 자동화와 전산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자 동물 사육 프로그래밍을 위한 전산운영능력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애초에 생물학을 하겠다는 강한 소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동물 사육 프로그래밍의 꿈 또한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면접 질의, 암송이 아니라 토론 문답식 스피치로 답변

수시 전형에서 면접은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진지한 태도와 적극적인 자세가 필수이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또한 철저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입니다.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읽고 이에 대해 나올 수 있는 모든 예상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심화된 질문에 유연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심화된 질문이란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뻔한 중복 질문이 아니라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는 모순점 추가 질문, 서류와 학생의 괴리점을 묻는 돌발 응용 질문을 의미합니다.

만약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경직되게 그대로 외울 경우, 면접 현장에서 질문이 약간만 틀어지더라도 긴장으로 인해 크게 무너질 수 있기에, 말하고 싶은 키워드 몇 개만 기억해서 면접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프로그래밍 활동에 대해 "전산학과에 더 어울리지 않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평소 생각대로 "프로그래밍은 어디까지나 생물학을 위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기록부는 다양한 교과 활동을 통한 진로 탐색

여기서 말하는 교과는 단순한 성적이 아닙니다. 교육과정에서 주관식과 객관식 정답을 맞추는 수준을 넘어 자신만의 활동과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교과 활동으로 확장된 지식은 점차 다양한 경험과 계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융합적 소양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의 모든 교과활동이 생물학자에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비판적 사고와 순발력을 성장시킨 교내 토론대회 경험 덕분입니다. 혹시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불안해하기보단 다양한 교과 활동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나가기를 추천해드립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키포인트는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선택하여, 부족하고 분산된 능력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명함입니다. 획일적인 양식에 휩쓸리기보다, 자신만의 분명한 색깔을 표현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학문의 강을 중국어라는 배로 건너다"



[박수현, 글로벌비즈니스학과 19]



생활기록부에 나의 관심사 드러내기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을 떠올려보면 저는 생활기록부에 대해 굉장히 무지했었고 생활기록부의 양만 늘리는 데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학년 때 제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중국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생활기록부에는 나의 관심사가 잘 드러나지 않는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저는 생활기록부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낼 수 있도록 저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담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관심사와 가치관을 드러내기 위해 제가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것은 교과 시간이었습니다. 교과 시간에 탐구 활동의 기회가 주어지면 저는 항상 제 최대 관심사였던 '중국'과 교과목을 연관 지어 저만의 활동들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수학 시간에는 중국의 수학사, 지구과학 시간에는 중국의 환경 정책, 사회 시간에는 중국의 빅데이터 산업 확장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모든 교과시간을 활용하여 중국에 대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지식을 쌓아나갔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관심사를 능동적인 활동으로 표현하자

학교생활 중 중국에 대해 느낀 점을 단순히 느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 더 알아보고 공부하며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얘기할 때면 저는 친구들이 중국을 단지 개발도상국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종종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중국을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라고만 인식하는 자세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고, 친구들이 몰랐던 중국의 새로운 모습들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알려주기 위해 중국 관련 도서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독서를 통해 중국이 한국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첨단산업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중국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주변국가에 큰 파장을 준다'는 의미의 '차이나 리스크'라는 용어도 생겼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교과 시간이나 진로 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친구들에게 공유한 덕분에 '차이나 리스크'를 '위태로운 중국'으로 해석하던 친구들의 편견을 없애고, 중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관심사에 있어서 느끼게 된 점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행동으로 옮긴다면 더욱 의미 있는 생활기록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톱!

저는 고3 여름방학 때부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를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생활기록부에서는 다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자기소개서에서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적어 내려갈 때, 저는 항상 기승전결을 염두에 두고 글을 적고자 했습니다. 모든 활동에는 그 활동을 하게 된 계기, 활동의 전개 과정, 활동 내용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 느끼고 배운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2학년 때 중국 쇼핑몰을 이용하는 친구를 보고 "왜 굳이 한국이 아닌 중국 쇼핑몰을 이용하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쇼핑몰에 직접 접속해서 중국 쇼핑몰과 한국 쇼핑몰의 차이점을 비교해보았습니다. 비교 결과를 살펴보다 중국의 소비 트렌드에 대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웰빙 소비를 즐기며 강한 온라인 구매력을 가진 중국의 Z세대와 독거 청년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통해, 저는 한국 기업들이 한국의 1인 가구와 함께 중국의 1인 가구도 공략한다면 기업의 활동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의 수익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같은 반 친구의 행동을 보고 궁금증을 풀기 위해 시작된 활동을 통해, 저는 중국의 소비 트렌드를 탐구하며 '최근 중국 소비 트렌드와 향후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적는 기회를 가졌고 꼭 중국을 공부해서 한국 기업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국 전문가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한 편의 이야기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서 기승전결의 틀을 바탕으로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내가 해온 활동들을 나열하는 식의 글이 아닌 기승전결이 있고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글이 자기소개서를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대만의 장점!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던 입시 기간을 거쳐 건국대학교에 입학하여 제가 느낀 건국대학교는 정말 많은 매력을 품고 있는 대학교였습니다. 1학년 때부터 해외의 여러 대학에서 방학 동안 공부하며 지낼 수 있는 '국제 단기 프로그램', 내가 선택한 전공 이외에도 새로운 공부를 하며 진로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해볼 수 있는 비교적 쉬운 '복수 전공의 기회', 그리고 여러 분야의 명사 분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상허스쿨 라리움 강의' 등 인문학적 소양과 재미를 함께 쌓으며, 흥미롭고 도움이 되는 수업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계열의 단과 대학들이 하나의 캠퍼스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건국대학교에서 여러분도 융합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Q1

내신 성적이 낮는데, 학생부종합으로 합격이 가능할까요?

A1

학생부종합전형은 내신등급만으로 '정량평가' 하지 않습니다.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이라는 평가요소를 토대로 '정성평가' 하므로 내신등급만으로 합격가능성을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2

교내 수상이나 비교과 활동이 저조한데, 학생부종합에서 불리한가요?

A2

학생부종합전형은 수상이나 활동의 개수나 등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수상경력에서는 관심분야가 어디에 있는지, 그에 따른 교내활동의 참여 정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교내 대회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을 고려해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고교 프로파일 및 학교알리미, 해당 고교 홈페이지, 동교 지원자 등의 자료들을 통해 확인합니다.

Q3

출결에 있어 1번이라도 지각/결석이 있으면 감점인가요?

A3

지각, 조퇴, 결과, 결석이 있다고 해도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단(미인정)의 경우, 학년이 바뀌어도 연속적으로 발생하거나 횡수가 많을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영역에서도 불성실한 모습이 나타날 경우에는 '인성' 에서 감점이 될 수 있으니, 출결에 대해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4

진로가 계속 바뀌었는데, 진로가 동일한 친구에 비해 불리한가요?

A4

고등학교는 진로를 탐색해나가는 시기이므로 진로가 바뀌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진로가 동일하든 바뀌든, 어떤 고민을 바탕으로 해당 진로를 정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대학에서는 '왜' 해당 진로를 희망하고, 진로를 정한 다음에는 '관련 활동과 경험' 을 어떻게 탐색했는지를 더 눈여겨봅니다.

Q5

봉사시간이 많으면 유리한가요? 그리고 개인 봉사도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A5

봉사시간은 한 학년당 권장 시간인 20시간 정도만 이수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활동이 개인이 한 것인지 교내에서 한 것인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과도한 개인봉사보다는 교내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충실히 수행했다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봉사활동의 실적이나 시간보다는 봉사활동의 내용에 주목하여 진정성 있는 봉사를 실천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Q6

독서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가요? 책의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궁금해요.

A6

독서활동은 지원자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독서의 양이 많거나, 혹은 어려운 전공 서적을 읽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생 수준으로 읽을 수 있는 도서 안에서 어떤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그로 인해 느낀 점은 무엇인지에 주목해서 해석합니다.

Q7

KU자기추천과 KU학교추천 중에 고민이에요.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A7

KU자기추천은 전공적합성이 보다 강조된 전형입니다. 해당 학과에 관심과 소질이 있어 본인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는 학생,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통해서 지원 학과와 관련된 활동 경험과 해당 근거까지 잘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이 지원하면 좋습니다. 반면 KU학교추천은 전공적합성에 대한 부담을 다소 줄인 전형입니다. 인성과 학업적 태도가 우수한 학생, 서류평가만으로 본인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학생이 지원하기를 권합니다. 2020학년도부터는 두 전형의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의 배점 및 평가항목이 달라진 점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 KU자기추천 vs KU학교추천

전형명	KU자기추천		KU학교추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탐구활동	200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탐구활동	300
전공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300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200
인성	협업능력 / 나눔과배려 소통능력 / 도덕성 / 성실성	200	협업능력 / 나눔과배려 소통능력 / 도덕성 / 성실성	200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력	300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력	300

Q8

면접 비중이 줄어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8

학생들의 면접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면접 비율을 30%로 낮췄습니다. 그렇다고 면접에서 변별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는 학생들은 모집인원의 3배 수만이 선발됩니다. 가령 10명을 선발하는 학과에 200명이 지원했다면, 30명만이 2단계에서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서류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학생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면접 대상자끼리의 서류평가 점수는 매우 조밀합니다. 결국 면접평가의 결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Q9

말을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면접에서 불리할까요?

A9

건국대학교의 면접은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인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진위여부 확인으로 진행됩니다. 서류에 제시된 활동이나 경험에 대한 계기, 배운 내용, 느낀 점 등을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추가 질문이 들어가지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운 답변이나 멋진 인용구 등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한 내용에 대해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Q10

서류평가나 면접평가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모두
합격이 가능한가요?

A10

건국대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은 서류평가만 진행되는 일괄합산 전형과 면접평가까지 진행되는 단계별 전형으로 구분됩니다.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모두 '발전가능성'에서 점수가 우수한 학생이 우선순위로 올라갑니다. 발전가능성도 동점일 경우에는 차순위로 5순위까지 적용하게 되는데, 동점자 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부종합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학생부종합전형 (KU자기추천)		학생부종합전형 (KU학교추천)
	1단계	2단계	
1순위	서류평가 발전가능성 점수	면접평가 발전가능성 점수	서류평가 발전가능성 점수
2순위	서류평가 전공적합성 점수	면접평가 전공적합성 점수	서류평가 전공적합성 점수
3순위	서류평가 인성 점수	면접평가 인성 점수	서류평가 인성 점수
4순위	서류평가 학업역량 점수	서류평가 발전가능성 점수	서류평가 학업역량 점수
5순위	-	-	학생부(교과) 성적

KONKUK University

더 궁금한 사항은?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PDF)



학생부종합전형
101가지 이야기 (PDF)



KU 전공
가이드북 (PDF)

- 발행일 | 2019. 7. 23
- 발행처 | 건국대학교
- 문의 | 입학처(서울)홈페이지 enter.konkuk.ac.kr
입학전형센터 T 02.450.4275 / F 02.2049.6312
- 제작 | 디자인여름 (02.421.1452)